2.6. 테이블 조인

지금까지 하나의 <mark>링리에서</mark> 하나의 테이블만을 사용했었지요. 지금부터는 하나이상의 테이블 - 물론 정확히 말해서 테이블이 아닌 뷰가 될 수도 있고, SB.ECT 구문으로 만들어지는 특정 로우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서버 함수의 리턴값으로 사용된 로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 을 같이 (전절(O)N) 해서 자료를 <mark>받아내는 것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RDBMS 용어로 테이블 조인 join이라고 합니다.</mark> 지금까지 사용한 테이블로 예를 들면, 특정 도시의 위지와 날씨를 함께 나온하려면, 가장 단순히 생각해서, 일단 weather 테이블의 내용을 하나씩 나온하고, weather 테이블의 가지고, Cities 테이블을 조회해서 location 칼림값을 같이 보여주면 되겠지요.

〈두 레시블 사건'도 연결하는 것!〉

지금까지는 사용된 칼럼 이름이 각각 고유한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자동으로 각각의 칼럼이 있는 테이블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만일 같은 칼럼 <u>이름이</u> 여러 테이블에 똑 같이 있다면, 윗 구문처럼 사용하면, 서<mark>비는</mark> 어떤 테이블에서 그 잘 럼을 참조해야 하는 지를 몰라 오류를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join 구문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칼럼 이름 앞에 테이블 이름을 함께 지정해서 사용합니다(이것을 *지정자 qualify*라고 합니다):

SELECT weather.city, weather.temp_lo, meather.temp_hi, weather.pro. weather.date, cities.location FROM weather, cities WHERE cities.name = weather.city;

권장하는 웨리문 작성 방법은 테이블 조안을 하는 경우라면, 출력되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반드시 이 지정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웨리가 수정되어 또 다른 테이블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웨리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병상으로도 사용 차송!